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학교 감염병 관리 레터

겨울철 대비 감염병 예방

4호

11월~12월

수행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보건·환경지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P.02

11~12월 주의해야 할
학교 감염병은?

» P.03

겨울철 대비 감염병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 P.11

과거 3개년 11~12월
학교 감염병 발생현황은?

I 11~12월 주의해야 할 학교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예방수칙을 꼭 지켜 대비해야겠습니다!

- 지난 3년간의 동기간 데이터 분석 결과, 겨울철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11월 혹은 12월부터 발생이 매우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올해 10월부터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는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접촉할 때 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밀접한 상태로 긴 시간 동안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높은 발생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두 발생률 또한 11월~12월에 걸쳐 높게 나타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수두의 경우, 3년간 겨울철 환자 발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누적 환자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유행하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수두 환자 누적 발생 수 : '16년 1,931명 → '17년 2,632명 → '18년 2,335명
 - ▶ 수두 환자 발생률 : '16년 학생 10만 명당 87.4명 → '18년 학생 10만 명당 82.9명 * 학생 10만 명 당 4.5명 감소

결막염의 경우, 가을철보다 발생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2018년 발생 수준이 예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018년, 전년대비 학생 10만 명당 8.1명에서 21.8명으로 발생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11월~12월 내내 예년보다 높은 발생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 11월~12월 중순까지 발생 수준이 꾸준히 지속되다 12월 하순에 접어들어 감소하는 추이가 지속됐습니다.
 - ▶ 결막염 환자 발생률 : '17년 학생 10만 명당 8.1명 → '18년 학생 10만 명당 21.8명
 - * 학생 10만 명 당 13.7명 증가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발생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함께 주시해야 합니다.

- 2016년과 2018년 11월 중하순 및 12월 중순에 발생 정점으로 발생 추이가 유사하였고, 2017년 발생 수준은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겨울철 모든 학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또한 고등학생 여러분은 결핵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도록 합니다.

 겨울철을 맞아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을 통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학교 감염병 발생 추세 감시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보고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병·의원을 통해 확진 받은 환자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학교보건환경포털(<http://www.sen.go.kr/ssh>)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II 겨울철 대비 감염병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 겨울철 유념해야 할 감염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1월과 12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본격적으로 유행시기에 접어드는 감염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 이른 겨울철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 특히 초등학생의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매년 이른 시기에 빠르게 유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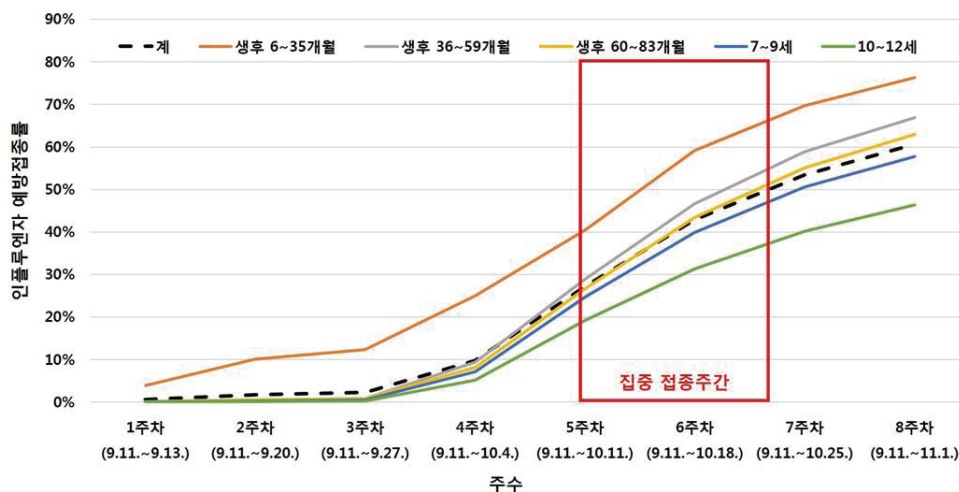
+ 인플루엔자를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왜 구분할까요?

- 첫째,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증이지만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며 감기와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 유발 가능
- 둘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해마다 변이를 거듭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걸렸던 사람도 올해 또 감염이 될 수 있음

+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예방 접종
-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적절한 시행법과 순응도가 제일 중요! →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모두 수행했을 때 효과적이고 시기상 유행 정점 때 가장 크며 15~60%까지 예방효과가 있음

+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은 언제 접종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림 1. 2018년도 연령별·주수별 누적 접종률 현황(유·무료접종 포함), 질병관리본부〉

- 예방접종은 11월까지 하는 것이 좋고, 그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음
- 학생은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및 예방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방학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혜택, 12세까지 확대 시행 중

- 2019.9.17일부터 2020.4.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 2019.9.17일부터, 1회 접종대상자는 2019.10.15일부터 가능

+ 지난 절기 생애 첫 접종을 1회만 했거나 접종하지 않은 경우, 이번 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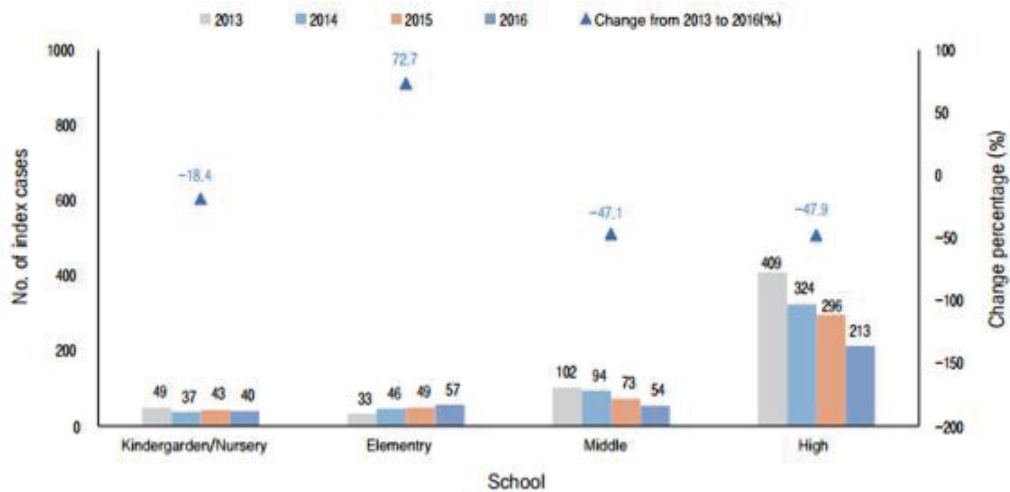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구분	백신 종류	접종 권장 시기	다음 접종 적정 간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건		
		IIIV (불활성화 백신) 약독화 생백신	IIIV : 생후 6개월 이상 약독화 생백신 : 생후 24개월~만 49세 연령에서 1회 비강 내 분무	접종 첫 해 : 4주 간격, 2회 다음 해 : 2회 접종 완료
		©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만 9세 미만 소아들도 유행주에 따라서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과 예방접종을 잘 실천한다면 자신의 몸,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고학년일수록 매우 유의해야 할 결핵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결핵은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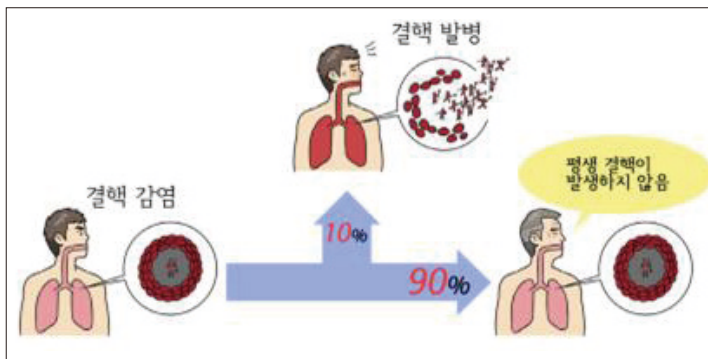


〈그림 2. 2010~2016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결핵 발생과 잠복결핵감염 현황, 질병관리본부〉
유·초·중·고교별 표본 건수와 연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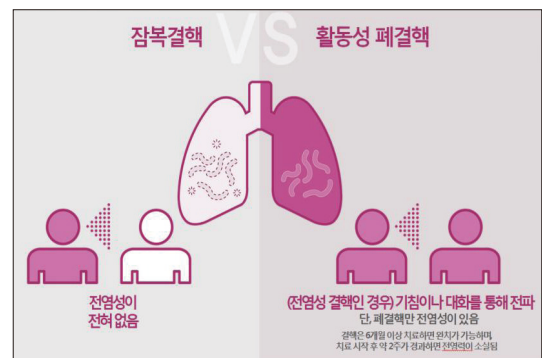
학생들이 왜 결핵을 조심해야 할까요?

-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동일공간에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감염성 결핵환자가 발생 가능
- 결핵균은 일정기간 정해진 잠복기간이 없어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결핵균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려움

결핵균에 감염되면 모두 결핵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림 3. 결핵 개요(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질병관리본부〉



〈그림 4. 잠복결핵(학교 결핵예방관리), 질병관리본부〉

- 결핵감염 후 2년 이내에 5% 정도 발생하고, 평생에 걸쳐 5% 정도 발생하여 10% 정도에서만 평생에 걸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하며 향후 발병할 위험성이 있다는 뜻
- 우리 몸의 방어기전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균이 증식하는 경우 병이 발생할 때, “(활동성)결핵”이라고 함

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면역력이 정상일 때는 발병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영양섭취와 건강관리를 하여 예방할 수 있음
-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염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중요



결핵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결핵환자를 평소처럼 대해주거나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III 호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은?

1.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는 환자 발생속도가 빠르고 발생률이 높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출입을 자제하고 학원 수강을 당분간 중단하는 것을 권장!
- 병원체 : Influenza Virus (A, B)

인플루엔자의 증상



주요 증상 : 기침, 인후통, 콧물, 두통, 몸살(근육통), 38℃ 이상의 발열 등

감기와 인플루엔자의 차이

구분	감기	인플루엔자
발열	드물고 경미	37.8℃~40℃(고열)
근육통, 관절통	드물고 경미	심함
콧물 · 코막힘	흔함	때때로

★ 감기는 인플루엔자와 다릅니다. 일반 감기는 병원진료 없이 나올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는 병원 진료가 꼭 필요!

★ 인플루엔자는 초기에 빨리 치료받는 것이 효과적

I 예방 및 대응 I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 등을 만지는 것을 피함
-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 혹은 옷 소매로 입·코를 가림
-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꼭 받도록 함
-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목수건을 이용하여 목도 따뜻하게 감싸 줌
- 본인이 걸렸다면 전파를 유의하며, 접촉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권장

🔴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하고, 초기에 치료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수두

- 수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교하지 않도록 하며 학원도 가지 않도록 권장
- 병원체 :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수두의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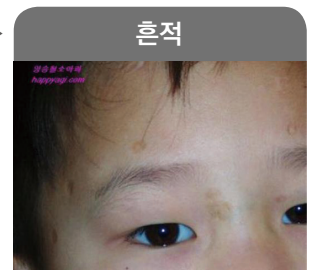
붉은 반점



물집 (수포성발진)



딱지



흔적

출처 : 질병정보-수두(질병관리본부)

비특이적 증상(접종완료 시) : 열, 식욕 감퇴, 두통, 피로, 전반적으로 축 처지는 느낌 등

수두의 전염성

- 수두는 전염성이 강하므로 수두에 감염된 사람은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삼가도록 함

* 수두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기간은 물집이 잡히기 1~2일 전부터 물집이 잡히고 3~7일 뒤 딱지가 생길 때까지

| 예방 및 대응 |

- 과거력 상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권장
 - * 수두 환자와 접촉한 후 3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90%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병하여도 증상완화 효과 있음
 - * 만 13세 미만의 경우 1회 접종하고, 만 13세 이상의 경우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실시함
- 물집이 모두 딱지가 될 때까지 학교 및 학원에 가지 않도록 함(발진 후 5~7일간 격리)
-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수두에 걸렸을 때는 물집과 딱지가 바로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 24시간 동안 발진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학교 및 학원에 가지 않도록 함
- 염증 부위를 긁지 않고 손톱을 짧게 유지하며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물로 찜질
-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유행 시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준수

☼ 수두는 법정감염병이면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생활의 특징을 갖는 학교의 장(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완치 후 등교 시 격리기간이 표기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을 잘 살펴보시고, 수두가 의심되면 학교에 보내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신 후에 학교에 알려주세요!

3. 유행성 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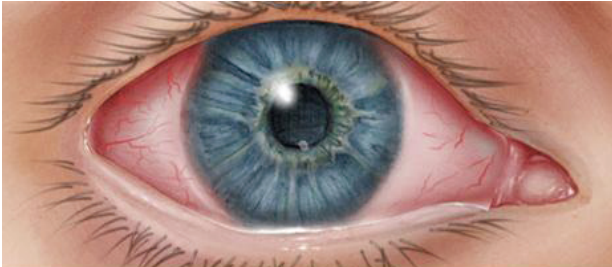
병원체

- 유행성각결막염 : 아데노바이러스(주로 8형, 19형, 37형)
- 급성출혈성 결막염 : 콕사키바이러스 A24 형, 엔테로바이러스 70형

유행성각결막염

시 기 | 늦여름부터 초가을, 산발적으로 유행
잠복기 | 5~7일
증 상 | 양안의 충혈, 동통, 눈곱, 이물감, 눈물, 결막부종 등
경 과 | 3~4주간 증상이 지속됨
전염력 | 발병 2주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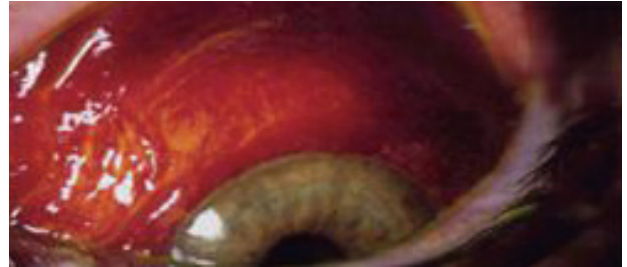
양 상



급성출혈성결막염

시 기 | 늦여름부터 초가을, 약 5년~10년 주기로 유행
잠복기 | 8시간 ~ 2일
증 상 | 갑작스런 이물감, 출혈, 눈부심, 눈물
경 과 | 약 2주에 걸쳐 가라앉음
전염력 | 증상발생 후 적어도 4일간

양 상



치 료 | 병원진료 후 필요 시 약물치료(염증억제제, 항균제 등)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출처 : 「유행성 눈병」 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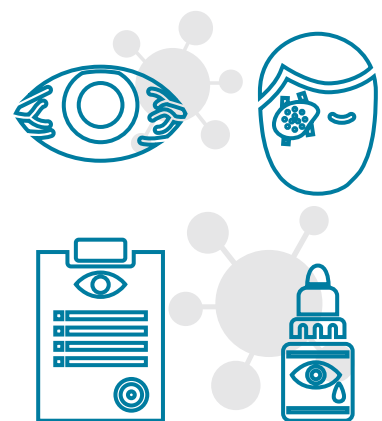
| 예방 및 대응 |

1) 정상인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 씻기
 - * 특히 전화기, 마우스, 문고리 등을 만진 경우 즉시 손을 씻도록 함
-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고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않도록 함
 - * 주변에 눈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수건, 비누를 환자와 따로 사용하도록 함

2) 환 자

- 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만지지 말고 즉시 안과 방문을 권장함
- 눈병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 하지 않게 유의함
 - * 안약은 감염된 눈에만 점안하며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음
- 수영장, 목욕탕,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가지 않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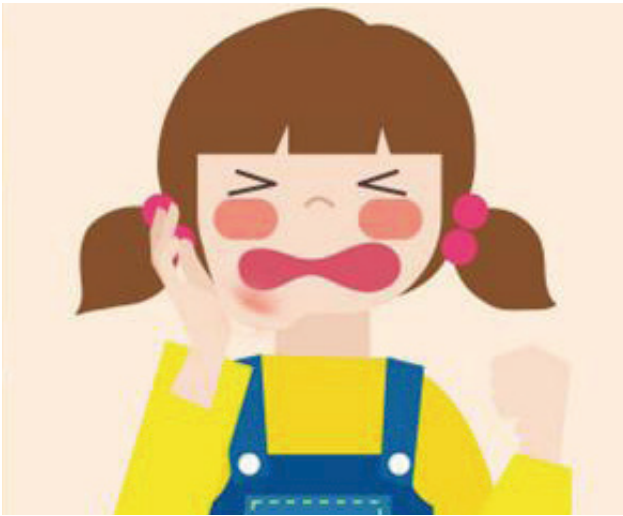
- 유행성 눈병은 전염력이 있으므로 발병 시 격리 없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가정에서 치료와 안정을 취하는 것 권장합니다.
- 집에서 안정을 취한 후 다시 등교하였을 때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4.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 유행성이하선염의 전염기간(증상 발생 후 5일)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학교 및 학부모님의 관리 필요
- 병원체: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

유행성이하선염의 증상

- 잠복기(2~3주) 후 1~2일간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침샘(주로 귀밑샘)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며 호흡기 증상만 나타내기도 함
- 1~2일째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3~7일 정도면 다른 증상과 함께 치유됨
- 합병증 : 뇌수막염, 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청력장애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특별한 합병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됨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출처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접종 아이 받니?”(질병관리본부 카드뉴스), 질병정보-유행성이하선염(질병관리본부)

전파경로

- 주로 감염자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침) 등 호흡기 분비물 통해 전파

격리 기간

- 보통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증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

| 예방 및 대응 |

-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킴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함
- MMR 예방접종을 2회 하지 않은 학생은 예방접종을 받음
- 유행성 이하선염이 의심될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음
- 유행성 이하선염을 진단받은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에게 전화로 알림
- 완치될 때까지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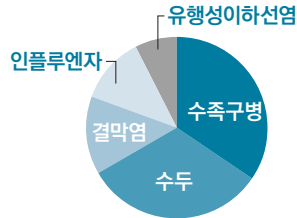
☼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접종을 받습니다.

☼ 유행성이하선염 감염 시 증상 발생 후 5일 동안 등교 중지 처리합니다.

☼ 집에서 안정을 취한 후 다시 등교하였을 때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IV 2019년 9~10월¹⁾ 서울시 학교 감염병 발생 요약

✎ 호발 감염병 발생 순위는 수족구병 > 수두 > 결막염 > 인플루엔자 > 유행성이하선염 순



수족구병	308명	인플루엔자	106명
수두	288명	유행성이하선염	66명
결막염	123명		

※ 초등학생(742명), 중학생(100명), 고등학생(59명), 총 901명의 감염병 발생

- 호발 감염병 발생 순위에 따른 발생 수준은 여름철과 동일하게 질병별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나 결핵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음 ▶ 학생 10만 명당 초: 0명, 중: 0.5명, 고: 2.3명

※ 가을철 수족구병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구는 관악구>송파구>도봉구>성동구>성북구 순

- 학생 10만 명당 발생률은 관악구(59.2명), 송파구(57.2명), 도봉구(56.1명), 성동구(53.0명), 성북구(48.9명)
- 발생 학생 수는 송파구(37명), 노원구(23명), 관악구(20명), 성북구(20명), 은평구(20명) 순
- ▶ 9월 셋째 주 발생 정점 후 감소세 전환(9월 둘째 주 83명 발생→10월 넷째 주 13명 발생)

※ 수두 발생 수준은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 증가 후 점차 감소하였음

- 학생 10만 명당 발생률은 강북구(155.4명), 중랑구(85.1명), 광진구(53.6명), 서대문구(51.5명), 영등포구(45.5명) 순
- 발생 학생 수는 강북구(36명), 중랑구(25명), 노원구(24명), 광진구(17명), 서초구(15명), 은평구(15명) 순
- ▶ 10월 둘째 주에 발생 정점(9월 첫째 주 12명 발생 → 10월 둘째 주 51명 발생) 후 감소

※ 유행성각결막염은 9월에서 10월에 이룰수록 발생이 점차 감소하였고, 인플루엔자는 이와 반대로 9월에서 10월에 이룰수록 점차 증가 추세였음

※ 호발 순위가 높은 감염병들은 분비물과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밀집 공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고, 특히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겨울철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함

01. 서울특별시 학교 감염병 발생 개요

※ 학생 수 및 발생률

학교 수(교)	학생 수(명)	9~10월 발생 학생 수	학생10만 명당 발생률 ²⁾	비고
1,354	897,698	904	100.7	

$$\text{※ 발생률} = \frac{\text{나이스에 보고된 감염병(의심포함) 환자수}}{\text{총 학생 수}} \times 100,000$$

※ 학교급별 감염병 발생 현황

(단위: 명)

학교급	대상 학생 수	인플루엔자	수두	이하선염	홍역	결핵	결막염	수족구병	백일해	성홍열	뇌수막염	신종 감염병	기타	계
계	897,698	106	288	66	0	7	122	306	1	5	0	0	0	901*
초	422,451	87	233	47	0	0	82	287	1	5	0	0	0	742
중	216,924	14	38	13	0	1	19	15	0	0	0	0	0	100
고	258,323	5	17	6	0	6	21	4	0	0	0	0	0	59

* 특수 및 대안교육기관 보고 건수는 제외하였음

1) 9~10월 - '19. 9. 1.~ '19. 10. 26.

2) 발생률은 해당 감염병 학생 수를 총학생수로 나눈 값이며, 10만 명당 학생 수로 환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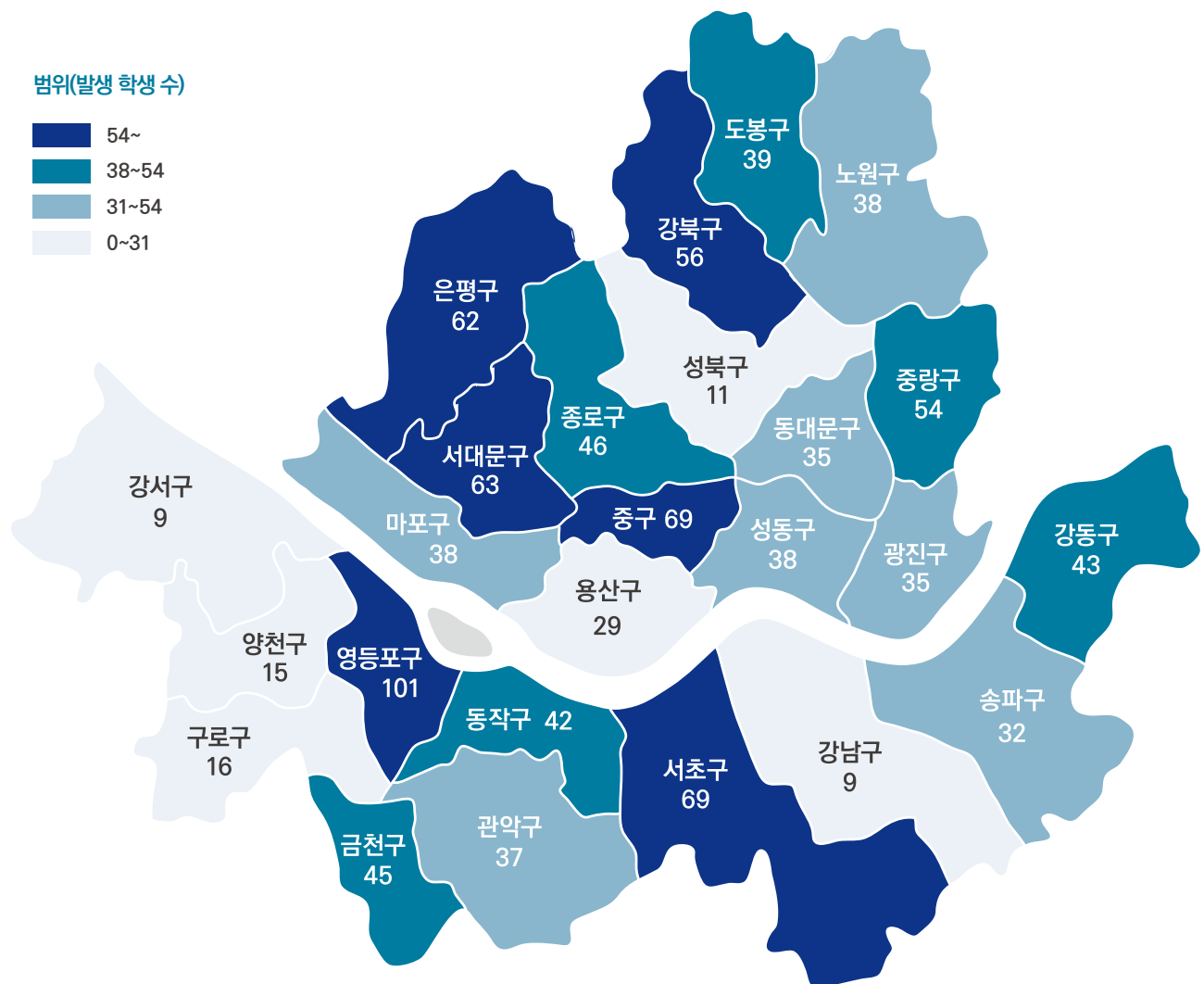
주요 감염병 환자(의심포함)발생 전체 현황

순위	감염병명	9~10월 발생 학생 수
1	수족구병	308
2	수두	288
3	결막염	123
4	인플루엔자	106
5	유행성이하선염	66
합계		891



02. 자치구별 소재 학교 주요 감염병 환자(의심포함) 발생 현황 지도³⁾

주요 감염병 환자 발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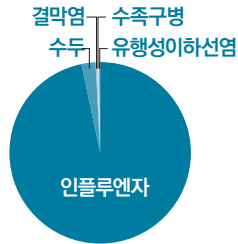


3) '서울학교보건환경포털'에 올라온 '19년 36-43주차('19.9.1-'19.10.26)까지 종합한 데이터를 지도화하여 스크랩하였기 때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올라온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V 과거 3개년('16-'18년도) 11~12월⁴⁾ 학교 감염병 발생 요약

3년간 11~12월 종합 호발 감염병 발생 순위는
인플루엔자 > 수두 > 결막염 > 유행성이하선염 > 수족구병 순

매년 겨울철 감염병 환자 발생 수는 감소세이나 인플루엔자, 결막염 등은 발생 수준이 꾸준하였음



인플루엔자	93,219명	유행성이하선염	161명
수두	2,488명	수족구병	126명
결막염	375명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유행시기가 앞당겨짐

· 겨울철 주간 단위 발생의 정점은 2016년 12월 중하순(52주차: 12.18~24) 학생 10만 명당 2,022.7명으로 전국 발생 학생 추이(52주차 학생 10만 명당 2,081.3명, 정점)와 흡사하였음

- ▶ 초·중·고교생 모두 인플루엔자 발생 수준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음
- ▶ '17-'18년도에는 12월 하순(51주차: '17.12.24~30, '18.12.23~29)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수두, 매년 11월 초 환자 발생 증가하여 12월 말에 환자 발생 감소하는 패턴의 유사성을 보였음

· 해가 지날수록 수두 발생 수준은 감소하였음 * '16년 학생 10만 명당 87.4명→'18년 학생 10만 명당 발생률 82.9명

▶ 매년 5~6월과 11~12월에 발생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발생 학생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였으나, 겨울철 발생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였음

결막염·유행성이하선염, 2018년 발생 수준이 가장 높았음

· 결막염 환자 발생률: '17년 학생 10만 명당 8.1명 → '18년 학생 10만 명당 21.8명 * 학생 10만 명 당 13.7명 증가

· 이하선염 환자 발생률: '16년 학생 10만 명당 5.2명 → '18년 학생 10만 명당 6.0명 * 학생 10만 명 당 0.8명 증가

수족구병, '17-'18년 11월 초에 발생 수준이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여 12월 말에 가장 낮았음

· '16년 11월 하순에 발생 수준이 가장 높고, 12월 말에 가장 낮았음

3년간 누적 데이터 분석 결과 발생 수가 높은 감염병은 대체로 호흡기와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며 밀집 공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확산되고 있음

'16-'18년도 11~12월 서울특별시 주요 호발 감염병 발생 현황

순위구분	연도	2016	2017	2018	합계
1	인플루엔자	40,515	18,242	34,462	93,219
2	수두	849	843	796	2,488
3	결막염	87	79	209	375
4	유행성이하선염	51	52	58	161
5	수족구병	52	24	50	126
	합계	41,554	19,240	35,575	96,369

※ 1. 위 자료는 2019.4.22까지 NEIS로 보고된 자료를 기준 작성된 것으로 해당 누계 분석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검사결과 등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2. 0: 환자발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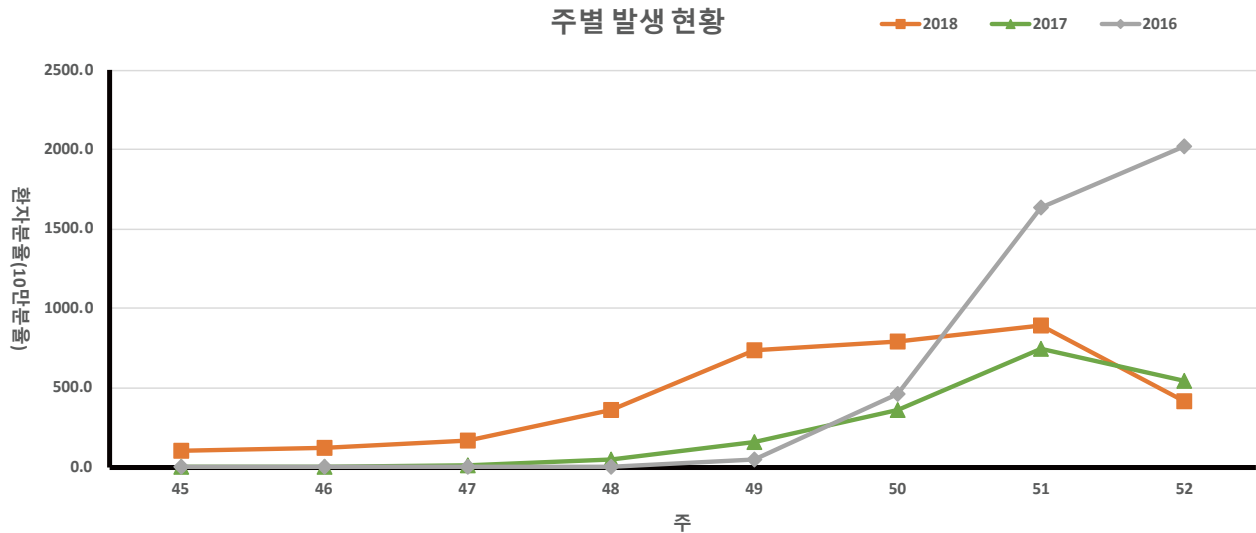
붙임 1. '16-'18년도 11~12월 주요 호발 감염병별, 주별 발생 현황 1부

2. 겨울철 감염병(인플루엔자, 결핵) 예방·홍보자료. 끝.

4) 45~52주차 - '16년도:10.30~12.24 / '17년도:11.5~12.30 / '18년도:11.4~12.29

붙임 1 '16-'18년도 11~12월⁵⁾ 주요 감염병별, 주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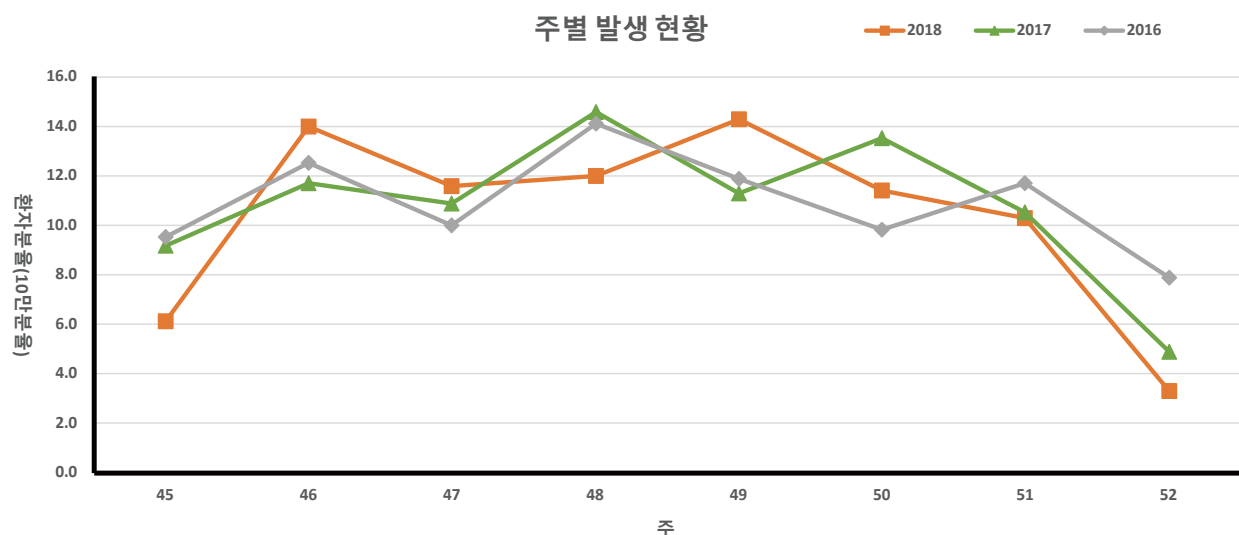
01. 인플루엔자



2016년 인플루엔자 발생 수준이 예년 대비 가장 높았음

- ▶ 2016년 12월 중·하순(44주차: 12.18~12.24) 발생률이 학생 10만 명당 2,022.7명으로 3년 중 가장 높았음(전국 단위: 학생 10만 명당 2,081.3명)
- ▶ 해가 지날수록 유행시기가 12월에서 11월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

02. 수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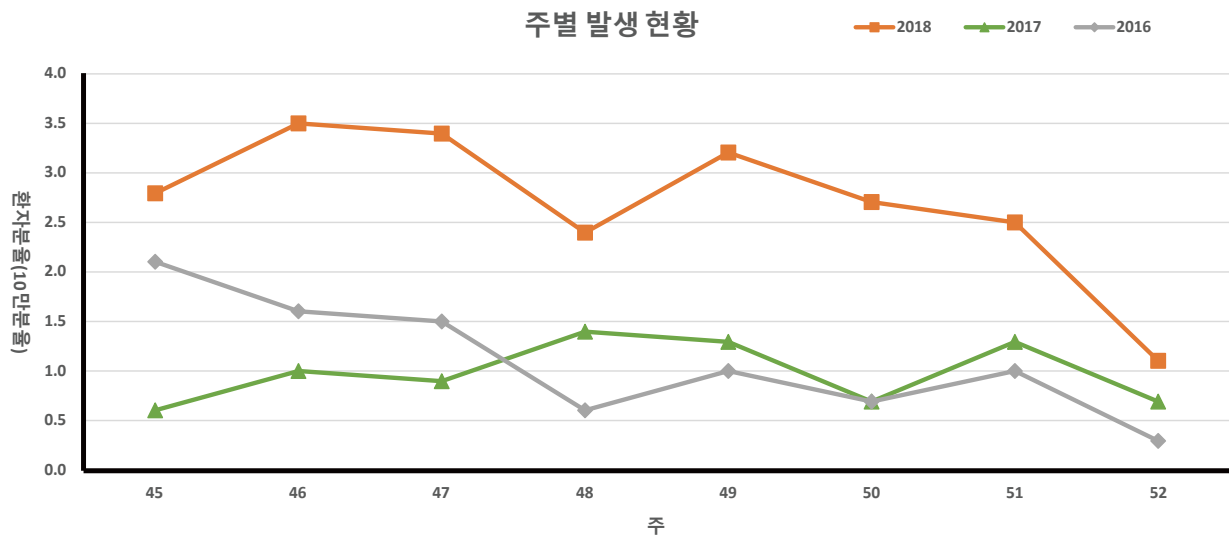
해가 갈수록 유행 발생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겨울철 발생 수준은 매년 감소 추세임

매년 11월 하순-말에 가장 발생 수준이 높았으나 해가 지날수록 해당 기간 전체 발생 수준은 감소하였음

* '16-'17년 48주('16.11.20~26 / '17.11.26~12.2), '18년 49주('18.11.25~12.1)

5) 45~52주차 - '16년도:10.30~12.24 / '17년도:11.5~12.30 / '18년도:11.4~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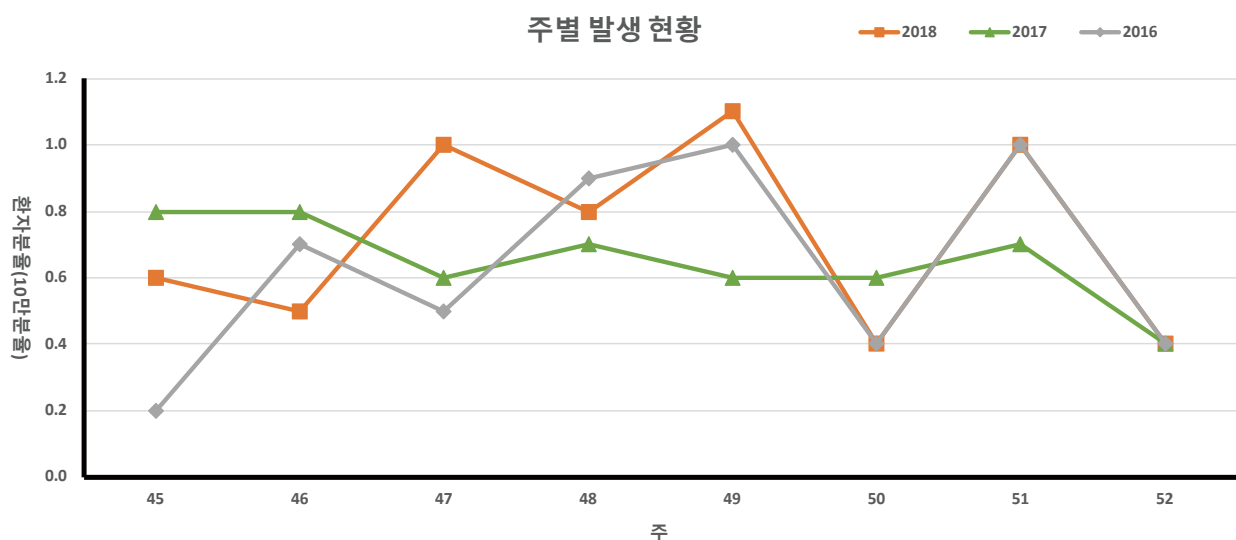
03. 유행성각·결막염



가을철과 동일하게 매년 발생 증가 추세였으며 2018년에는 예년 대비 발생 수준이 매우 높았음

- ▶ 18년 11월 중순, 발생 수준 정점(46주차: 11.11~17, 학생 10만 명당 3.5명)
- ▶ 이에 반해 전국 단위 표본 감시 통계에서는 11월은 2016년(47주차: 11.13~19, 인구 10만 명당 63.8), 12월은 2018년(49주차: 12.2~8, 인구 10만 명당 50.0)이 제일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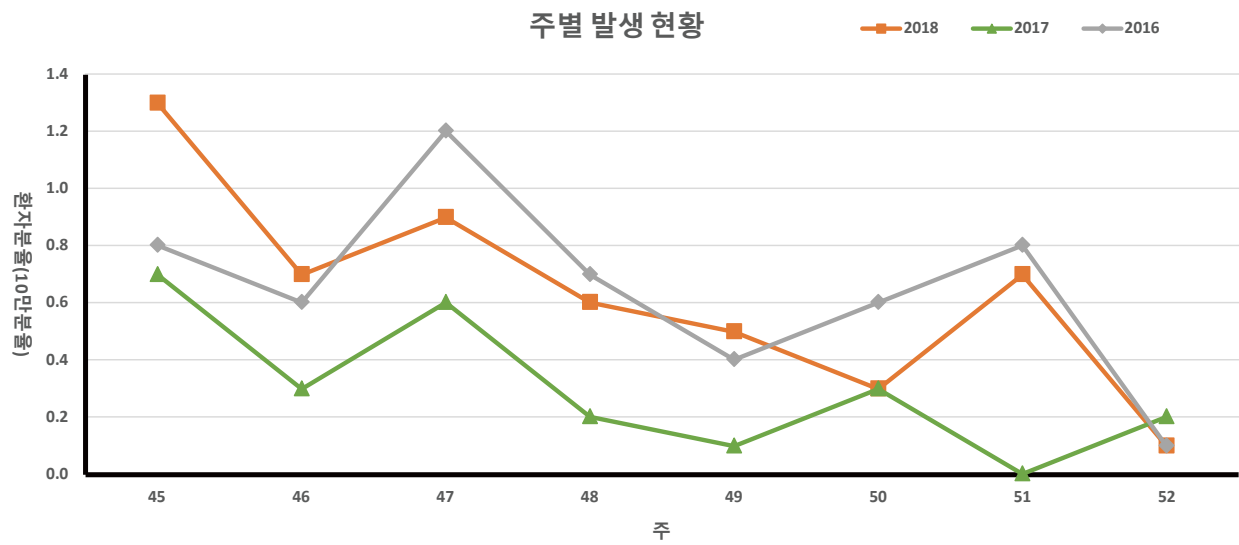
04. 유행성이하선염



2016년과 2018년의 발생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12월 초·중순에 정점

- ▶ '16년 49주차(11.27~12.3) 학생 10만 명당 1.0, '18년 49주차(12.2~8) 학생 10만 명당 1.1로 가장 높은 발생 수준 나타냈음
- ▶ 반면, 2017년 발생 수준은 예년 대비 매우 작은 폭의 변화로 꾸준하였음

05. 수족구병



2017-2018년 발생 추이가 유사하였으며, 11월 초에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음

- ▶ 2018년 45주차(11.4-10) 학생 10만 명당 1.3으로 해당 구간 중 가장 높았음
- ▶ 2016년에는 11월 중순인 47주차(11.13-19) 학생 10만 명당 1.2로 정점

붙임 2 겨울철 감염병(인플루엔자, 결핵) 예방·홍보자료



이 집 예방접종 맛집이네!(질병관리본부)
https://youtu.be/RxhKizFI_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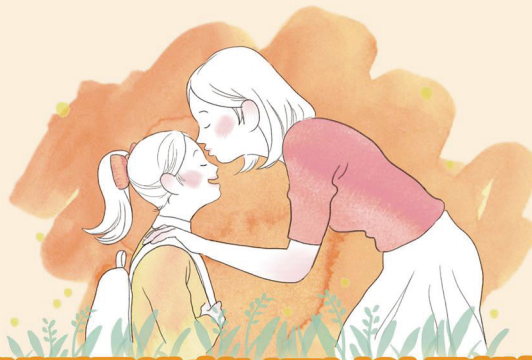


콜록콜록 기침을 계속한다면 이 병을 의심하세요!
 (질병관리본부)
<https://youtu.be/2JkGtbqn7Dg>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와 효과 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11월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해주세요



자녀의 예방접종에 학부모님이 동행해주세요.

접종대상 | 2007. 1. 1. ~ 2019. 8. 31. 출생아

운영기간 | 2019. 10. 15.(화) ~ 2020. 4. 30.(목)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